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Online Series

2016. 07.15. | CO 16-20

북한의 노림수와 사드(THAAD)

홍우택(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여 북중 관계를 가깝게 만들려고 하였다. 북한이 기획한 노림수였다. 노림수는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에 자극을 받은 남한이 사드배치를 서두르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사드배치 때문에 한중 관계는 틈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였고, 이틈을 이용해 중국에 다가서려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북한이 예견한 수순이었고 노림수가 가져올 결말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두 가지를 간과하였고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사드의 배치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보니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는 불필요한 무기체계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도 남한을 공격하는데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는 것은 모험이다. 가까운 거리를 공격하는데 발사 각도를 높이면 명중률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본토나 괌, 그리고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같은 장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미사일의 고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먼 거리를 날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한국만을 방어하는 데는 저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사드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다. 지난 6월 22일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는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그것도 고각으로 발사한 까닭에 사거리는 400km로 짧아졌다. 고각 발사로 남한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처음이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면 남한은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실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인가는 장담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을 해야만 했다. 북한의 행동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7월 8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지 약 3주 만이다. 사드로 인해 자신의 전력이 열세에 처해진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기가 막혔을 것이다. 한국에 반발은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북한을 탓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작 미국에는 못하면서 한국에 가할 수 있는 보복의 종류들이 중국의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의 언론에선 중국이 보복을 하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계산하고 있다. 신중하게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듯 싶다.

북한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복을 하는 것을 노렸다. 애초에 무수단을 고각으로 발사한 이유다. 그러나 중국이 위협을 넘어 실제로 한국에 보복을 실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을 북한은 간과했다. 또한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사드로 인해 미국의 확장억지력의 신뢰성이 강화되어 버렸다.

어떤 종류건 중국이 보복을 한다는 것은 한국 국민을 자극하게 된다. 한국 국민 대다수를 적으로 돌릴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무단한 노력을 해왔다. 보복이란 결정으로 이를 무너뜨리는 선택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 만큼,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겐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강하게 반발하지만 외교적인 비난을 넘어서는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드배치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핵우산의 신뢰성 중의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은 미국의 본토나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협박으로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드는 미국의 보복을 확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100퍼센트

방어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만일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은 미국은 당연히 보복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협박에 굴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여 얻고자 했던 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한중관계가 벌어지는 것을 노렸지만 그런 선택을 할 만큼 중국은 어리석지 않다. 더구나 사드를 배치함에 따라 북한은 자신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북한은 물리적 보복을 언급하며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애써 중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양새다.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북한의 행태에 중국은 어이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자신의 실패를 인지한 순간 늘 그래왔듯 대화공세를 펼칠 것이다. 물론 진심을 담은 대화공세일리는 없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